

종계업 전망

계열사와 농가 종속관계 심화되면 농장경영 포기사태 속출...

산 좋고 물 좋은 속리산 자락 한적한 곳에서 오직 닭만을 사랑하며 36년간 양계에만 전념하며 살아온 필자는 2009년도 양계산업의 전망에 대하여 원고 청탁을 받으면서 우리 산업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싶어 두서없이 서술코자 하니 독자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종계업의 문제점

한국의 종계업은 약 90%에 달하는 종계생산 물량이 직·간접적으로 계열사에 분양됨으로써 6개월 이상 원가(수당 450원) 이하의 병아리 가격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0만수가 넘는 종계가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열사들도 육계병아리 가격이 원가 이하에 형성 되더라도 필요시 구매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채산성을 무시한 채 물량확보를 위해 생산 잠재량을 갖고 가야만 하기 때문에 결국 육계 생산은 항상 과잉을 안고 과잉은 가격하락과 경영손실을 초래한다.

경영손실은 종계농가와 육계농가에 전가되어 우리 양계농가들을 구한말 소작농보다 못한(고지쌀이나 먹고 값아가는) 선거금을 쓰지 않고는 경영을 할 수 없는 거래에 의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종계규모로 500만수 시대가 정착되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계열사는 종계농가와 부화장도 사업파트너이자 동반자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구조로 간다면 종계농가와 부화장은 없어지고 계열사의 소모품으로 또는 직영농장의 관리인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이 봉 기

도원농산 대표/PS친목회 회장

필자는 양계협회 종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종계 수당 원가분석을 토의해본 적이 있어 내용을 서술코자 한다. 작금의 계열사 계약서를 취합하여 평균을 요약한 것으로 계열사별로 비슷할 것으로 본다.

PS 인수가 2,500원 사료 kg당 285원 배부율 75% 종란가 200원 종란수 150개를 기준으로 할 때 종계수당 3,000원 정도의 수익을 내 줄 뿐이다. 이 수익률은 부업농이나 타당하지 자본을 투자한 전업농이나 기업 농가는 이자도 되지 않는다.

종계 1마리 사육할 수 있는 규모면 육계 4마리를 사육할 수 있다. 종계 1회전 사육시 육계 8회전 사육이 가능하다. 종계 1회전 수익이 1,000원이라면 육계는 8,000원(8회*1,000원) 수익을 낼 수 있다.

현재 종계업 종사자의 수익률은 투자는 더하

고도 육계농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익과 위험에 대한 농가피해도 종계업이 훨씬 크다. 절대 다수의 종계업 종사자들이 사육하면 할수록 빛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농장경영을 포기하여야 하고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현실이다.

종계업 발전의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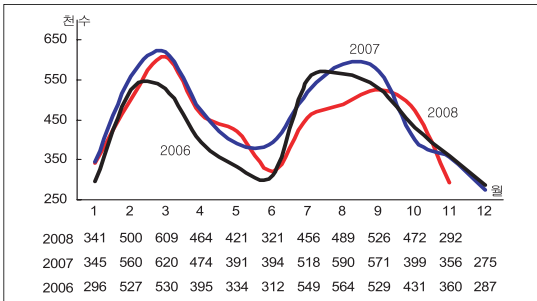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의 종계업은 계열사에서 농장을 선정하여 입추, 육성, 집란, 부화 등 전 과정을 일관처리 후 발생하는 모든 사업 미수금을 농가 명의로 처리하며 종란을 납품받아 미수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계부화업 종사자들이 우수종란생산 원가절감 신기술도입 등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계열사가 아니면 정부정책에 접근조차 할 수 없고 정부관계자 역시 계열사가 아니면 양축가가 생존권보장을 외쳐도 들어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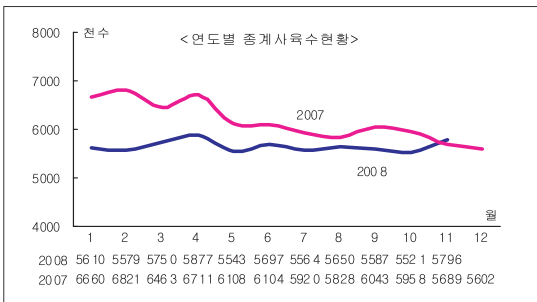
수직 주종 관계로 만들어진 사육계약서를 수평 평등 계약서로 바뀌게 정부와 협회가 나서야 한다.

계열사에서 원종계업을 분리 시켜야 한다.

계열사가 종계, 부화업을 함께 끌고감으로써 종계농가의 선택권은 없어지고 좋으나 나쁘나 심지어 좋지 않은 PS인줄 알면서도 감수하고 받아야 하며 시장상황을 무시하고 물량 확보에만 치중한 결과 생산원가는 개인보다 높고 과잉공급에 의한 병아리 가격의 폭락, 품질저하 양계농가 수익성 악화 등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표1〉 육용종계 입식현황



〈도표2〉 연도별 종계사육수현황

양축농가만을 위한 정책자금이 필요하다.

우리 종계산업이 자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 일어서기엔 짐이 너무 기울어져 무겁다고 생각된다. 정부가 참여하여 농민이 바로서서 갈 길을 잡아주고 축산에 관련한 정책자금을 빛깔 좋게 양축농가에게 준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양축농가에게 주어 1차 산업인 종계농가가 발전하여야 된다고 보며 현재와 같이 정책자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화사를 통하여 자금을 선거금으로 받거나 시중은행에서 담보 잡히고 대출하여 주는 금액의 10%밖에 주지 않는 정책자금을 쓰라는 것은 우리 양축가에게는 ‘그림의 떡’이라 생각하며 계열사에게 선거금이나 받아 쓰고 이자만 7%~15%까지 물어가며 사육하여 선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심지어 전업농 및 기업농장등은 정책자금은 그림에 떡이고 시중은행에서 수십억원씩 대출받아 현대화 시설 및 규모화 하였지만 시설을 잘하면 잘할수록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익은 거의 나지 않고 비싼 이자만 갚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은 은행이자 만큼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없다고 본다.

이러기에 국가에 바라는 소망은 축산자금을 축산인에게 직접 갈 수 있는 정책을 세워 축산인이 자력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미 정책자금을 받지 못하고 시중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하여 현대화 시설 및 규모화한 전업농 및 기업농의 부채들을 시중은행에 제공한 담보물을 농신보에서 인수하고 정책자금 및 무이자로 전환하여 몇 년 거치로 매년 회수하여 빛 없는 양축인이 되기를 원하지, 주어야 쓰지도 못하고 말만 풍성한 자금은 필요 없다고 보며 사업의 도움도

되지 않으며 세금만 낭비한다고 본다.

또한 농민에게는 소득세를 감면 및 면제 하여야 한다. 현재 전업농 및 기업농가는 FTA로 인한 수입개방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이익을 낼 수 없으며 은행의 채무가 수십억원씩 쓰고 있음으로 해마다 적자를 보면서도 흑자가 난다고 신고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적자 재무재표가 나면 원금상환을 독촉 받을까 고심하여 항상 이익이 난다고 신고하는 실정이다.

종계병아리 입식부터 육성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FTA 국회 인준 후 국내 양계산업의 미래는 없다. FTA당사국들의 자국 축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EU의 축산선진국들은 전축종(소·돼지·가금류)대하여 출산부터 시작하여 성장, 임신, 출산 전 농가보급 등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생산자단체에게 보조금을 주어 오래전부터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 종계업에도 입식부터 육성까지 양계협회를 통하여 실시한다면 정확한 소비량을 예측하여 적정 종계가 관리된다면 가격폭락 근절 질병관리강화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비 감소 우수한 병아리 공급 계열사의 경영안정 생산 단가의 하락으로 국제 경쟁력확보 등 국내 양계산업 발전의 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우리 종계 부화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양계협회가 추진하는 DB사업 및 자조금, 표준계약서 작성들을 양계협회를 축으로 단합하여 행동한다면 2009년도에는 종계인들의 소망이 이루어 질것으로 확신하며 종계사업 전망과 우리의 바램을 서술해본다. **양계**